

매출 '뚝 뚝'... 향토 막걸리의 눈물

웰빙 음식으로 한 때 높은 인기를 끌었던 향토 막걸리가 소비 감소 및 판로 확보 어려움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역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5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소비 감소와 대형업체들의 공세로 판로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향토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현재 7곳이다. 발효주인 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짧아 지역 내 유통만 가능한 특성 때문에 지역 막걸리 제조업체는 영세한 규모로 종업원 5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인 기업도 직원이 10명 내외인 곳이 많다. 막걸리를 제조하는 업체만 91곳인 전남도 역시 특화사업 성과와 일부 업체의 수출을 통한 판로확보로 상황은 좀더 나아졌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최근 막걸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는 대신 막걸리 생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이런 상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 모임인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한국막걸리협회와 대기업인 국순당·롯데칠성음료 등이 맺은 상생협약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만든 막걸리를 자사의 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해 소개하고 중소기업의 마케팅·투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기업이 막걸리를 제조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구조가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광주의 A막걸리 제조업체는 중소기업 적

중소기업 적합업종서 제외 대기업 공세에 판로 어려움 수출도 부진... 매출 반토막



합업종 제도가 만들어진 2011년 당시 막걸리에 한 암효과가 있다는 연구발표가 나오면서 연 매출이 40억원을 돌파했지만 지난해에는 매출이 20억원 대로 크게 줄었다.

광주 지역 B막걸리 업체 역시 지난해 매출이 전

년에 비해 20% 이상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막걸리 제조업자는 "막걸리의 특성상 아직은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거대 자본과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면 문제가 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소하는 일본 수출 역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 막걸리의 일본 수출액은 지난 2011년 4841만 달러에서 2012년 3199만 달러, 2013년 1362만 달러, 2014년 914만 달러로 감소했다.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3년 사이에 81.1%나 급락했다.

일본으로 막걸리를 수출해오던 지역 업체는 사실상 일본 시장을 접은 채 지난해부터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 C업체 사장은 최근 열린 수출상담회에 참가해 베트남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했다.

이 같은 국제시장 트렌드 변화는 막걸리를 주요 식품산업으로 육성하려던 전남도에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막걸리 제조업체가 점차 줄고 있고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인 지역 막걸리 생산업체가 최근 소비심리 감소와 판로확보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친환경 제품 생산 확대와 수출 다변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판로 확충과 품질 업그레이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52.84 (-9.95)

▲ 금리 (국고채 3년) 1.98% (+0.01)

▲ 코스닥 600.81 (+2.58)

▲ 환율 (USD) 1090.50원 (+6.40)



핸드메이드 제품 백화점 입점 5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5층에 액세서리, 선글라스, 주얼리 등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디자인 프리마켓 '수집(SOOZ-IP)'이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입점했다. 수집은 아름다운 손을 모아 만든 디자이너 공간이라는 뜻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금호타이어 지난해 영업이익 3585억... 3.6% 늘어

올 매출 3조9천억, 영업이익 4천억 설정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매출액이 3조4천365억원, 영업이익은 3천585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7.1%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6%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2013년 9.4%에서 지난해 10.4%로 상승했다.

세계 경기 불황과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판매가 인하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고수익 제품군 판매가 늘고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영업이익은 증가했다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살아나면서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전년보다 7.2% 증가한 것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또 프리미엄 완성차업체에 대

한 판매와 중국 신차용 타이어 판매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81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8천360억원으로 10% 줄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경영목표를 매출액 3조8천758억원, 영업이익 4천134억원으로 정하고 제품과 영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2009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중장기 타이어 수요가 연평균 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미국 조지아 공장 건설, 중국 난징공장 이전 등 설비투자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전산센터 광주로 이전 ... 거래업무 일시 중단

18일 밤 10시~20일 오전 11시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센터를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함에 따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8일 밤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총 37시간 동안 은행거래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업무는 자동화 기기(CD/ATM)를 이용한 입출금 및 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각종 조회업무 등 은행업무 전반에 해당된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 동안에도 사고신고와 제반 문의는 광주은행 콜센터(1588-3388)를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체크카드는 18일 22시부터 24시, 20일 9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명호 광주은행 IT본부장은 "광주은행 고객들께서는 설 연휴 이전에 입출금 및 송금 등의 은행업무를 처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가 뜬 연휴를 이용해 전산센터 이전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되고 신속한 전산시스템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only
SHINSEGAE

신세계 우리술방

우리 쌀과 물과 누룩, 우리 자연이 빚은 술.
전통 제조방식으로 빚고 자연에서 숙성시켜
세련된 병과 패키지에 담아 드립니다.

■ 세 일 글

“노후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내실있게 추진”

윤철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본부장

“지역의 노후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거점화를 추진하고, 기업성장 종합지원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등 올해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일자로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본부장으로 부임한 윤철(52) 본부장은 노후단지 구조고도화(혁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호남 지역 산업단지가 창조경제 구현의 중심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신임 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금호고와 전남대 농업토목공학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88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사한 이후 호남지역본부 광주지부장, 경기지역본부 사회입주지원팀장, 본사 전략사업팀장, 호남지역본부 군산지사장, 본사 개발사업실장, 행정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